

행복한 책 읽기

한무영 '빗물과 당신' 〈알마 펴〉

빗소리가 좋다. 근심 없이 잠든 새벽녘, 경주마들이 달리는 듯 소란스런 빗소리에 깨어나 그 소리를 듣는다. 활엽수 숲속을 헤집고 다니는 빗줄기를 상상하다가 양철 지붕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떠올린다. 처음 내리는 발자국처럼 조그맣게 들리는 수줍은 빗소리에도 좋다.

비를 맞는 것은 더욱 좋다. 아무도 밟지 않는 길을 혼자 걸으며 온몸이 젖도록 비를 맞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친다. 산성비를 맞고 대머리가 될 거라고 겁을 준다.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다. 산성비라니, 비를 맞을 때마다 찝찝했는데, 서울대 빗물연구소장 한무영 교수의 책을 읽고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다.



잘 관리해도 대규모 토목사업은 필요치 않다. 저자는 '의지가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과불로 네루다의 말을 인용하며 물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내리는 비의 1~2%만 받아 두어도, 물은 차고 넘친다. 물 부족 국가라는 인식은 물의 사용량과 필요량을 부풀린 셈이며, 강을 중심으로 댐을 막고 물 관리를 잘못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 국가이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

비가 산성이라는 말은 맞다. 깨끗한 대기상태에서 내리는 비라 해도 처음에는 산성이다. 오염된 대기에 내리는 비는 조금 더 강한 산성일 수도 있겠지만 땅에 떨어지는 순간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한다. 별다른 대기오염 사고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산성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즐겨먹는 콜라나 맥주, 사과즙, 요거트, 매일 쓰는 샴푸나 린스가 비보다 백배 천배나 강한 산성이다.

한 교수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낙인에도 반박한다. 댐 건설이나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됐던 인식이 아니던가. 자신이 토목공학자이면서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반대한다. 큰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치적 갈등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땅과 환경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빗물만

우리가 음용하는 지하수나 댐 저장수가 깨끗할 리 없다. 수돗물 펌프사고에서처럼 물을 콘크리트로 막아놓으면 오염되기 쉽다. 전기를 돌려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흐르게 한 청계천 같은 사업은 생태 환경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꼴이다.

대신, 고여 있지 않는 빗물은 깨끗하다. 천지사방에 내리는 빗물을 그대로 받아서 증류하면 된다. 시골농가나 전원주택에서는 간단한 여과장치로 빗물을 모아 두어 생활용수로 쓰고 모든 건축 물을 지을 때 흙통과 수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게 하여 빗물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필터로 거른 비한 정수기물보다 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 호주의 '구름주스(Cloud Juice)'는 빗물로 만들어진 고급생수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딱 맞는, 빗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며 사람을 살린다.

빗물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깨끗한 물이다. 작은 빗방울 하나를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정 강 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번역하고 엮은 책이다. 정약용 선생이 1801년 유배지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7편, 아들에게 내려주는 교훈 9편, 형남에게 보내는 편지 14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11편 등 61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전남대, 시민참여 한 책 읽기 운동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로 스타트

인간성 상실 혼란한 세상... 다산을 배우자

“우리는 폐족이다. 폐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라. 폐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하겠느냐?”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인생에서 나오는 아픔을 겪어본 이들에게는 진한 여운을 주는 글이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다.

그러나 천주교 박해와 보수적인 노론 벽파에 밀려 강진에 유배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다산은 그곳에서 500여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조선 실학체계를 완성했다.

전남대와 광주시민이 함께 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박석무 전 의원이 번역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한 책'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23일 국제회의동 2층 융복합홀에서 '한 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청강연을 한 박석무 전 의원은 “21세기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큰 윤리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200년 전 다산이 강조했던 효제윤리를 회복하는 길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가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시민독서운동 '광주가 읽고 토크(talk)하다'는 한 권의 책을 선정, 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다.

'광주톡'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4901명, 도서관 투표용

지로 1563명, 총 6464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남대는 투표 결과, 한책선정위원회 의견, 내부 논의를 거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한 책'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박범신 '소금', 김훈 '남한산성'도 투표결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시가 하나의 책을 함께 읽는 'One city one book'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래했다.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처음 시행했고, 2001년 시카고가 풀러치상 수상작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함께 읽으면

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이 탄생한 순천시도 2004년부터 '책 한권, 하나의 순천'을 진행하고 있다. 안도현의 '연어' 등이 선정됐고, 올해는 이외수의 '청춘불패'를 읽고 있는 중이다.

광주의 'One city one book'은 이번 전남대 도서관의 '광주톡'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선택한 책을 함께 읽고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일련의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책 읽는 도시, 토론하는 도시는 향후 문화중

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을 추첨해 작가와 떠나는 유럽문학기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선정된 '한 책'과 동반도서를 읽고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한책 행사를 계기로 광주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iskypark@kwangju.co.kr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융복합홀에서 시민독서운동 '광주가 읽고 토크(talk)하다' 한 책 선포식이 열렸다. 박석무 작가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투표 등을 거쳐 '한 책'으로 선정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쟁으로 연주하는 사부곡

명인故 서용석 선생 아들 영호씨

내일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아버지를 그리며.’

국악계의 큰 어른이자, 아쟁 명인인 서용석 선생은 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아들로 역시 아쟁 연주자로 활동하는 서영호(내빈소리 민족예술단 예술감독)씨가 아버지를 추모하는 연주회 무대에 선다.

광주시 서구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은 서영호씨 초청 아쟁연주회를 연다. 2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서씨는 이날 무대에서 애절함이 돋보이는 '서용석류 아쟁 산조'와 남성적인 특징을 자랑하는 '김일규류 아쟁산조'를 들려준다. 서

씨는 경주신라국악제에서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예고에 출강중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또 서용석 선생의 미망인 최산호 선생이 남도잡가 '흥타령'을 들려준다.

그밖에 소리꾼 박춘맹(전남도립국악단 지도위원)씨가 관소리 '심청가' 중 '삼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주며 김해진씨가 서씨의 아쟁 연주에 맞춰 살풀이 춤을 선사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OPEN SALE

천연원목 **빈티지**가구 / 소파 / 대리석식탁 / 온열 · 안마침대

CASATO

까사또 (가족/이태리어 상표등록)

광주점 **금호월드 7층 45호** ☎062)350-8333 **금남가구거리점 (유동사거리 옆)** ☎062)381-3388